

---

**보도자료**

2010년 3월 25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전파연구소 이천분소 김정태 분소장(☎031-644-7401)

전파연구소 이천분소 기술과장 배석희(☎031-644-7510)

joseph@kcc.go.kr

---

## 전파연구소, 제주 「우주전파센터 건립 기공식」

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(소장 임차식)는 3월 25일(목) 우주전파종합 관측시설인 『(가칭)우주전파센터』 기공식을 제주 공사현장(한림읍 귀덕리)에서 가졌다.

이날 기공식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자 부위원장을 비롯해,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외빈과 공군 관계자 및 우주전파환경 서비스 수요기관 등 약 200 여명이 참석하였다.

우주전파센터가 완공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의 전문인력과 공군 관계자가 공동근무를 통해 우주전파환경 업무 전반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1966년 이후 지난 40여년간 전리층, 지자기 관측 등과 함께 태양 및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관측과 연구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, 군, 항공사, 대학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해 예, 경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.

본격적인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 및 전파를 이용하는 제반 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태양전파, 전리층 등 우주전파환경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,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주파수 주무관청에 소속된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어 체계적이고

종합적인 우주전파환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.

이번에 기공식을 갖는 우주전파센터는 태양흑점 폭발 등으로 발생하는 고에너지입자 방출과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경우 예·경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우주전파환경 변화로부터 국가의 방송 및 통신 인프라를 보호하고 관계기관, 기업 등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.

제주 우주전파센터는 건물면적 3,810m<sup>2</sup>로 지하1층, 지상 3층으로 건축되며 총사업비는 186억원이다. 건축물은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측정 및 관측시스템 구축을 거쳐 태양활동 극대기(2013년 예상)를 앞 둔 2012년중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.

\*태양활동은 약 11년 주기로 극대기가 도래하며, 학계에서는 다음 극대기(2013년)가 그동안 가장 강력했던 1859년의 활동에 버금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